

은하문화학교  
2010년 6월 30일(수)  
14:00~17:00

#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

김 남 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140-026)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팀  
전화 : (02)2077-9319/9297, 팩스 : (02)2077-9300,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sup>1)</sup>

김 남 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1. 소크라테스, 그는 누구인가?
2. 델피의 신탁과 무지의 지
3. 匠人들의 앞
4. 검토(exetasis)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 1. 소크라테스, 그는 누구인가?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따르면 기원전 400/399년 그가 법정에서 설 때의 나이가 70세였다고 한다. 그의 생년을 역산하면 그는 기원전 470/469년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석공이었다고 전해지는 소프로니코스와 산파였던 파리아레테가 그의 부모였으며 우리에게 악처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크산티페가 그의 부인이었다. 크산티페와의 사이에 세 아이를 두었는데 둘은 그가 죽을 때 아직 어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그에 관해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3차에 걸쳐 중갑보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다는 것과 406년 및 404년 추첨직 민회 대표로 재직했다는 것 이외에는 공적인 활동에 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참전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아테네를 떠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외적인 생애에 가장 큰 일은 아마도 노년에 재판관 받고 사형선고를 받아 감옥에서 죽음을 맞은 일이 될 것이다. 그가 고발당한 죄목은 도시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도입했으며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죄목이 실제 고발의 원인인지 또는 정치적 재판을 위한 명목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

1) 인용할 수 없는 초고입니다.

공자, 석가 예수와 함께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나머지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어떤 글이나 저술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에게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상은 대체로 그의 걸출한 제자였던 플라톤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40여 편 전해오는 플라톤의 저술에서 많은 경우 소크라테스가 대화의 중심인물 역할을 한다. 플라톤 이외에도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역시 플라톤을 깊이 흠모했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크세노폰 그리고 소크라테스 사후에 아테네에서 활동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들을 통해 소크라테스에 관한 보고를 들 수 있다. 이 외에 그를 추종했던 여러 학파들의 단편과 이 시기의 문헌들에 근거한 후대의 문헌들이 전한다.

플라톤이나 크세노폰의 문헌에는 소크라테스의 생김새에 관한 묘사가 종종 등장한다. 그는 넓적코와 불거진 눈, 두터운 입술을 가졌으며 배가 튀어나온 모습으로 묘사되며 아테네의 거리를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맨발로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그는 ‘약한 주장으로 강한 주장을 이기는 방법’의 달인으로 학생들에게 궤변술을 가르치는 소피스트의 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구름>이라는 그의 희극에서 소크라테스는 천체연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언급된 그의 자연학적 설명에 대한 관심과 결합되어 그가 아낙사고라스와 아르켈라오스의 제자였다는 전언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상에 간략히 소개된 그의 생애로 보아서는 그가 왜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어 왔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세 성인은 오늘날까지 대단한 수의 신도와 추종자를 가진 종교를 창시한 이들이며 그 영향력이 외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한다. 소크라테스의 어떤 점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놓이게 했으며,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될 만 하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그 이전의 철학의 역사를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나누며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역사에서 분기점을 이루는 존재로 설정했다. 이런 역사적 평가를 내리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 2. 델피의 신탁과 무지의 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주로 행하고 다녔던 것은 물음을 묻고 토론과 논쟁을 하는 일이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행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귀결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는 것을 들어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폰(Chaerephon)이 델피의 신탁에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티아(Pythia) 여제관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대답한다. 자신이 결코 현자가 아니며 스스로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개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보기로 마음을 정한다. 그는 현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현명함을 밝힘으로써 신탁을 논박하려 한다. 자신보다 나은 앎과 지혜를 가진 자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신탁의 말이 사실과 같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시인, 정치가, 장군, 연설가 등 당대의 현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다닌 소크라테스는 그러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많은 이들에 의해 그들이 현자로 존경받고 스스로 현자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들이 어떤 점에서 현자가 되지 못 하며 어떤 점에서 그들이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앎을 가지지 못 했는지를 시인들에 관한 그의 다음 언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시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그들이 가장 힘들여 쓴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골라서는,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들에게 따져 묻곤 했는데, 이는 동시에 그들에게서 제가 무언가를 배우게도 되었으면 해서였습니다.[.....] 저는 다시금 시인들의 경우에도 오래 걸리지 않고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이 짓는 시들을 지혜(sophia)에 의해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고난 것(physis)에 의해서 그리고, 마치 예언자들이나 신탁의 대답을 들려주는 사람들처럼, 영감을 얻은 상태에서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들 또한 많은 아름다운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니까요.”(박종현 역, <소크라테스의 변론> 22b-c, 일부 개역)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시인들이 자신들의 시가에서 쓰는 내용에 관해 앎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쓴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나, 그들은 스스로 쓴 것이 무슨 뜻인지에 관해 대답하지 못한다. 이점에서 그들은 영감 속에서 신탁이나 예언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신지핀 상태에서 표출되는 신탁이나 예언 속에 어떤 종류의 진실이 들어 있듯이 시인들이 말한 것 속에 무엇인

가 의미 있는 것이 들어 있기는 하나, 신지편 상태에서 말하는 그들 시인이나, 예언자들은 그 내용에 관한 물음에 왜 그러한지는 대답하지 못한다. 시인들이 그들이 지은 시에 관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 지혜는 인용구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관해 그 뜻을 대답할 능력을 의미한다. 말한 바에 대해 뜻을 말하고, 물음에 대답할 때 성립하는 앎을 정치가나 시인이 모두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인용된 구절에서 지적하는 점이다.

소크라테스는 물론 스스로 이런 앎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의 구절이 소크라테스의 이른바 무지의 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준다:

“이 사람보다야 내가 더 현명하지. 그건, 실은 우리 중에서 어느 쪽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야, 사실상 내가 알지 못하듯, 알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지. 어쨌든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바로 사소한 이 한 가지 것으로 해서, 즉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로 해서, 내가 더 현명한 것 같아.” (앞의 책 21d, 일부 개역)

소크라테스 스스로 문제되는 사안들에 관해 분명한 앎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즉 스스로의 무지에 관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앎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많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구분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모르는 것에 대한 진정한 탐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고, 따라서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누누이 강조했다. 당시 지식인들이라 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지녔다고 주장하는 앎에 대해 물음을 던졌던 소크라테스의 행적은 지혜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 앎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수궁할 수 없을 때 신탁의 말조차도 그 진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나, 그것을 실제 현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반증하려 했던 그의 행적은 당대의 아테네 사회가 당연시해 왔던 오랜 전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새로운 앎의 출발점은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깨달음이었고 따라서 무지의 지를 역설하고 다닌 그의 행적은 또 다른 점에서 새로운 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닌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의 행적은 기존의 것의 전복을 넘어 신생과 새로운 것의 정초라는 성격을 가진 것이기도 했다.

### 3. 匠人들의 삶

시인들이나 정치가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그의 지적은 그러나 스스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그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찾아다닌 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匠人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일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들에게도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도 아는 듯 행세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이들의 삶을 그가 적극적으로 정초하고자 했던 삶의 모델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가 匠人들에게 인정했던 삶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어보자:

“그리하여 저는 마지막으로 工匠들한테로 갔습니다. 그건 저 자신의 경우에는 실제로 아무 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 들만은 많은 것을, 그것도 훌륭한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임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잘못 판단하지는 않았으니, 이들은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 점에서 이들은 저보다도 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인 여러분! 훌륭한 장인들 또한 시인들도 지니고 있는 것과 똑 같은 잘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여겨졌거니와 - 이들 각자는 제 기술을 훌륭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장 중대한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장 현명한 것으로 여기더군요. -이들의 이 과오가 그 지혜를 가려버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같은 책 22c-d)

인용된 구절에서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장인들이 그들이 하는 일의 영역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지지 못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가장 중대한 일에 관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시인이나 여타 당시의 지식인들과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장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변론> 뿐 아니라 플라톤의 전 저술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그가 여러 저술에서 예로 들고 있는 장인은 제화공, 목수로부터 농부, 항해사, 의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장인들이 가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혜는 그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영역에서 특정 작업에 대해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딸 수 있다(logon didonai)는 점이다. 예컨대 제화공은 구두를 만드는데 왜 특정한 재료를 쓰며, 특정 부

위의 모양이 왜 특정한 형태를 가져야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구두의 소용과 기능으로부터 제시된다. 시인들이 자신이 이야기한 바에 관해 모르고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언명은 일단 당시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또는 여타 비극시인들이 자신들의 서사시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수많은 내용들에 관해 책임 있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장인들의 그것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냐에 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이 물음에 관해서도 우리는 대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장인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 가장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란 아마도 좋은 삶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시인이나 정치가의 사안이며 그들의 앎이 힘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장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앎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점에 그들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지적이다. 시인들의 경우 그들이 시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술, 전투, 축성술 등 여러 영역에 관한 앎을 그들은 지니고 있지 않다. 그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역인 좋은 삶에 관해서도 시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에 근거를 제시할 능력이 없다. 위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소크라테스가 장인들의 앎을 의미 있는 앎으로 긍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영역 넘어 까지 앎이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지만 그들의 영역 내의 사안에 관한 앎은 일단 앎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듯이 그 앎은 그들이 제작하는 것, 그들이 수행하는 일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그 기능과 관련하여 제작에 관련된 특정 선택이나 행위의 좋음 여부가 판정된다. 앎에 관한 이런 기본 구조는 가장 중요한 일 즉 좋은 삶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이에 대해 앎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자신의 선택이나 주장과 관련하여 그것이 왜 좋은지에 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장인의 경우처럼 명백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참을 근거지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말들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장인적 앎을 의미 있는 앎의 출발 모델로 삼았던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될 것이다.

#### 4. 검토(exetasis)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법정의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이 캐물음 때문에 많은 사람의 미움을 사고 비방을 듣게 되었다는 점을 토로한다. 소크라테스의 이 캐물음이 얼마나 철저한 것이었는지는 여러 모로 이야기될 수 있다. 법정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고발한 세 사람의 고발이 근거 없고 악의에 찬 것임을 조목 조목 구분하여 따지고 반박하고 있으며 사안 자체에 대한 이런 엄격한 따짐의 자세는 사형판결이 난 후의 변론에서도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견지되고 있다. 배심원들의 비위를 맞추어 동정을 얻고 형을 가볍게 하는 종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평생 해 왔던 일과 가져왔던 믿음을 견지한다.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했다시피, 신이 저로 하여금 지혜를 사랑하며 또한 저 자신과 남들이 캐물어 들어가면서 살아야만 한다고 신이 자리를 정해 주었는데, 이 마당에 제가 죽음이나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이든 이를 두려워하며, 제 자리를 뜬다면, 저는 무서운 짓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28e-29a)

신이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 정해진 자리는 지혜를 사랑하고, 자신과 남들을 캐물어 가며 사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든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든 그것을 따져 캐물으며 지혜를 사랑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일, 즉 철학이란 따져 묻고 그 근거를 캐 가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죽음이나 그 이외의 어떤 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와 같은 일은 자신의 자리를 뜨는 무서운 일이 되리라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캐물기의 삶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 <크리톤>의 다음 구절이 보여준다. 감옥에 갇혀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그의 벗 크리톤이 탈옥을 권유한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으며 옥리들에게나 탈옥 후 가게 될 해외에도 모든 것이 이야기되어 문제가 없다. 어린 자식들의 양육도 생각하고 가장 친한 벗이자 선생을 떠나보낼 친구들의 입장도 생각하라는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가 말한다:

“여보게, 크리톤! 자네의 그 열의가 만일에 어떤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그야 큰 가치가 있는 것일세.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열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만큼 더 곤란한 것일세. 그러니 우리가 그걸 실천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만 하네. 이걸 내가 이제 비로소 하

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따져보고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원칙 (logos) 이외에는, 내게 속하는 그 어떤 것에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 일세. 이전에 내가 견지해 왔던 그 원칙들을 내게 이런 운명이 닦혔다고 해서 이제 와서 내던져 버릴 수도 없지만, 그것들이 내게는 거의 같은 것들로 보이며, 따라서 이 원칙들을, 이전에도 그랬던 것들과 똑같은 것들로 받들며 존중하네.” (박종현 역, <크리톤> 46b-c)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의 긴 설득에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크리톤의 제안을 검토 해 보자는 것이다. 여기 ‘검토’로 번역된 말은 앞에서 ‘캐묻기’로 번역된 바로 그 말 이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탈옥하자는 친구의 권유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따져 보아 원칙에 맞는 정당한 일이라면 따르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나 행동 이전에 그 결정과 행동의 정당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것인지에 관해 캐묻고 따지기를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에게나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도 이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렇게 캐묻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누구든 소크라테스와 가까이하고 그와 말로 교제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전연 다른 어떤 것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더라도, 그 사람의 논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 들어가서 스스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은 어떠했는지, 자기 자신에 관해 설명을 하게끔(logon didonai) 빨려들 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설명하도록 끌려들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그를 아주 잘 그리고 철저하게 검사하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네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네.”(라케스, 187e6- 188a3)

이 캐묻는 삶의 모범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한 일은 인간의 삶에 지혜의 추구라는 하나의 새로운 삶의 태도를 새로이 정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말을 통해 여러 가지를 추구할 수 있으나 따져 물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했으며, 그 자신 이 작업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규범은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된 문자문화 시대의 기본 규범으로 이후 3000년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



△ 그리스 지도

## 2010년도 상반기 「은하문화학교」 교육 프로그램

- 일정 : 2010년 3월 10일~8월 4일 (매주 수요일) 14:00~17:00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교육 일정별 주제 및 강사

구분	날짜	주 제	강 사
1	3/10	인류문화의 판타지, 신화-그리스 신화의 상상계	유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발칸어학과 교수)
2	3/17	오리엔트와 옥시덴트: 오리엔트와 그리스문명의 Nexus	배철현(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3	3/24	고대 그리스 세계의 전쟁	김경현(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4	3/31	그리스 문명의 시작 : 에게해 문명	최혜영(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5	4/7	고대 그리스의 서정시에 대하여 아르킬로코스 (Archilochos, 기원전 7세기)를 중심으로	안재원(서울대학교 연구교수)
6	4/14	그리스 조각	노성두(프레시안 인문학습원 미술사학과 교장)
7	4/21	그리스 : 서양 문명의 발상지	유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발칸어학과 교수)
8	4/28	역사로서의 그리스 신화 : 미케네 문명과 고대 오리엔트	오홍식(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강사)
9	5/12	그리스의 수사학(rhétorikê) - 아테네의 10대 연설가를 중심으로	김 현(서울대학교 HK연구원 연구교수)
10	5/19	그리스의 정치와 사회 - 헬레니즘(그리스문화)의 온상 -	최자영(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연구교수)
11	5/26	키클라데스 군도의 대리석 우상	안성복(전 서울대학교 강사)
12	6/9	그리스 도기	노성두(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미술사학과 교장)
13	6/16	알렉산드로스와 마케도니아 왕조 미술	조은정(목포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14	6/23	그리스 건축 : 신들의 풍경	김광현(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5	6/30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	김남두(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16	7/7	그리스 문명 속 비극	김기영(서울대학교 교수)
17	7/14	그리스 문학-서사시(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강대진(前 국민대학교 교수, 현 정암학당 연구원)
18	7/21	그리스 문학-희랍비극	강대진(前 국민대학교 교수, 현 정암학당 연구원)
19	7/28	그리스 문명의 확산 - 지금 그리스는..	유재원(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발칸어학과 교수)
20	8/4	그리스 알파벳의 기원	배철현(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